

‘스타 작사가’ 가수 꿈 이뤘다

■ 첫 음반 낸 ‘히트 메이커’ 메이비
‘갯 차’ ‘중독’ 등 인기곡 작사
“이젠 노래로 박수 받고 싶어”

“잘 나가는 작사가이니 생계에 지장 없었다. 뭐하러 가수 하나. 작사나 하고 시집 가서 편하게 살자.”
가수가 아닌, ‘히트 메이커’ 작사가로 유명한 메이비(Maybee·본명 김은지)에게 이 같은 말은 늘 상처였다. 경남 창원에서 가수가 되고자 스무 살 때 상경, 6년간 몇몇 소속사에서 음반 작업하다가 중도 하차해 좌절된 서너 번. 그러나 자신이 기억하는 한 줄곧 꿈은 가수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음반 하나 손에 쥐는 게 소원이었다.

“사람들이 왜 이별 후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지 음반이 좌절될 때 깨달았어요. 밥도 못 먹고 말라갔죠. 엄마는 ‘글 솜씨가 있으니 가수하지 말고 유학 가서 문학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가 안 되더군요.”

작년 11월 음반제작사 플레디스(PLEDIS)와 계약한 후 윗몸 일으키기를 하며 노래하기, 안무실 뛰며 노래하기 등 스프라타식 트레이닝을 가까이 감수했다. 오랜 시간 기다린 꿈을 위해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서야 1집을 손에 넣었다.

가수로 가는 방향의 길목에서 그가 얻은 건 작사가란 타이틀. 이효리의 ‘텐 미니츠(10 Minutes)’ ‘리멤버 미(Remember Me)’ ‘갯 차(Get Ya)’,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그래도 남자니까’, 김중국의 ‘중독’ 등 메이비가 노랫말을 붙인 히트곡은 셀 수 없다. 스승인 작곡가 김건우 씨는 그에게 메이비(5월의 별)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꽃꽂이 피는 따뜻한 5월의 화려함 속에 날아다니는 별처럼 살라고.

김건우가 프로듀싱한 메이비의 1집에도 14곡 중 타이틀곡 ‘다소’와 ‘미열’, ‘캔디’, ‘잘가’ 등 10곡을 작사했다. 1집에는 발라드, 보사노바, 디스코 등 여러 장르를 담았지만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멜로디와 노랫말은 동양적이다. 그의 외모 또한 과거 강수지, 하수빈을 잇는 청순가련형인데다 음색마저 고운 미성이어서 외모, 노래, 음색 등 삼박자가 동양미로 통일된다.

김건우 씨는 “과워풀한 가창이 대세인 지금 미성은 오히려 장점이 수 있다”며 “너의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불렀을 때 그 느낌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자”고 보컬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6년 만에 꿈을 이뤘으니 그간 쌓아온 가수로서의 목표도 무궁무진하리라.

“시상식 대상, 1등은 차후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실수 안하고 노래 잘해서 박수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텐 미니츠’ 가사에 놀랐던 부모님, 애견 미움을 하는 두 살 연하 남동생에게 이제 떳떳한 가수로 설 수 있어 기쁩니다.”



이수영 영국무대 첫발

‘韓·英 방문의 해’ 기념 내달 1일 공연



가수 이수영(27)이 영국 런던 무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수영은 ‘2006~2007 한영 양국 방문의 해’ 지정을 기념해 주영 한국대사관과 한인회가 5월1일 오후 7시30분 런던 크로이던(Croydon) 페어필드홀(Fairfield Hall)에서 개최하는 ‘2006 싱크 코리아, 코리아 판타지(Think Korea, Korea Fantasy)’(가제)에 대중가수로는 유일하게 참석한다.

이수영의 소속사인 리쿠엔터테인먼트는 “이수영이 한국 대중가수로는 유일하게 이 공연에 초청됐으며 이달 말 영국으로 출국, 30일 한차례 리허설을 가진 후 이틀날 2천여 관객 앞에서 히트곡 ‘그리스’ 등 3~4곡을 노래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에는 영국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한국 예술인 2명, 영국인 성악가 1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1부에선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의전행사의 일환으로 양국 국가와 ‘한국 환상곡’을 연주하고, 2부에선 이수영 등이 노래한다.

“어린이의 순수함

스크린으로 전달



영화 ‘마이키펀 김대출’ 출연 정재영

지난해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흥행배우로 자리매김한 정재영이 영화 ‘마이키펀 김대출’(감독 송창수, 제작 진인사 필름)로 돌아왔다.

이번에 맡은 역은 문화재 도굴꾼 김대출. 영화는 국보급 문화재인 금불상을 둘러싸고 김대출과 동네 꼬마 지민, 병오가 벌이는 숨바꼭질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에 초점을 맞췄다. ‘마이키펀 김대출’은 영화 ‘집으로...’처럼 어린이의 순수성을 부각시킨 작품.

지난 10일 오후 서울극장에서 시사회 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송창수 감독은 “상처받은 어른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상처를 치료한다는 내용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정재영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라면서 “영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도 특유의 순박함이 묻어나는 연기로 아이들의 순수성에 동화되는 도굴꾼 김대출을 연기했다. 도굴꾼들이 도굴을 하기 전 진행하는 의식 중 하나인 흙을 먹는 장면

등에서는 리얼한 연기도 보여줬다.

“진짜로 흙을 먹었느냐”는 질문에 정재영은 “음식물로 만든 흙이었지만 촬영 중 실제 흙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두 번 흙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술팀에서 음식물로 만들어진 흙을 먹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 음식물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흙 먹는 장면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산중에서 찍었습니다. 그 때도 미술팀이 흙을 만들어줬는데 빗물 등으로 진짜 흙과 섞어 입에 넣고 씹었을 때는 정말 흙이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 시골 꼬마 지민을 연기한 남지현 등 아역들의 활약이 컸다. 어린이와 영화를 찍는 것은 처음이라는 정재영은 아역 연기자들의 연기에 대해 “성인 연기자들이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어린 못지않은 연기력과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자리를 함께 한 남지현은 정재영을 ‘대장’이라고 부르며 “(영화 출연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추억이 됐다”고 말했고, 병오 역의 김수효는 “큰 감동을 주는 영화”라며 영화 홍보에 한 몫을 하기도 했다.

제17423호 2판
2006년 4월 15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 발행 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부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재부 2200-616 광고부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린이재부 2200-690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건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당선확신!!

선거제도개선, 선거제도, 원로작성, 유세제도, TV연설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11월 29일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복사실, 팩스실, 전화실, 인터넷실, 주차장, 보안시스템, 화재경보기, CCTV, 장애인 편의시설

연우개발 행정관리사무소 011-471-4111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1위경동보일러 우수회사 삼우상사

011-278-4242